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종단 분석

구 재 선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서 은 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주관적 안녕감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횡단적 관계를 검토하는 예비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은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과 느낌,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2년 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은 동일시기(초5) 뿐 아니라 2년 후 중1이 되었을 때에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관적 안녕감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적게 감소한 청소년들이 중1이 되었을 때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이 긍정적인 다문화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행복을 통해 미래 한국 사회의 특징이 예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주관적 안녕감,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 교신저자 : 서은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esuh@yonsei.ac.kr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행복하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Diener & Suh, 1999, 2000), 행복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Diener도 한국이 경제수준에 비해 불행한 국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통해 어떠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행복의 원인을 찾고 증진방안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우리 사회의 낮은 행복이 미래 한국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의 주제들도 마찬가지이다. Oishi와 Koo(2008)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복 연구들은 대부분 ‘행복이란 무엇인가’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들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복의 정의’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되었으나, 행복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에 학계에서는 행복이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Oishi, 2012; Oishi & Koo, 2008).

행복의 결과를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시간이 지난 후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단연구는 동일 시점에 측정된 변인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임의로 특정 변인을 선행 혹은 결과변인으로 간주하는 횡단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함으로써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해준다.

지금까지 행복을 선행변인으로 간주한 중단 연구들은 행복이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유해하기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한다고 보고해왔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당시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중년이 되었을 때 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Harker & Keltner, 2001). 또한 젊은 시절 행복한 수녀는 그렇지 않은 수녀보다 수명이 약 10년 정도 더 길었다(Danner, Snowdon, & Friesen, 2001). 국내 연구들에서도 행복은 미래 삶에서의 높은 학업성취(구재선, 서은국, 2012;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4), 직업적 성과(구재선, 서은국, 2013), 그리고 또래들 사이에서의 인기도(구재선, 이아룡, 서은국, 2009)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행복이 개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복이 개인의 안녕 뿐 아니라 미래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주관적 안녕감의 결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행복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다. 과거 철학의 주제였던 행복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이라는 추상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Diener(1984)는 행복이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이때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정서적(유쾌하거나 불쾌한 정서 경험) 혹은 인지적(삶에 대한 만족도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다면적 구성체라고 볼 수 있다(Diener, 1984; Diener, Scollon, & Lucas, 2003).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Lyubomirsky, King, 및 Diener(2005)의 메타분석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은 건강, 수입,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성공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Fredrickson(1998, 2001)이 제안한 긍정적 정서의 확장-형성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의 중요한 요소인 긍정적 정서는 사람들의 순간적인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며(broaden), 이를 통해서 개인은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자원을 형성하게 된다(build). 따라서 비록 긍정적 정서가 일시적으로 경험된 후 사라질지라도,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자원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개인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Fredrickson & Branigan, 2005)에서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람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람보다 하고 싶은 활동의 목록이 더 길었고, 전체-부분 시각 처리 과제(global-local visual processing task)를 수행할 때 부분보다는 전체를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 정서가 시각적 주의와 활동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긍정적 정서가 이후 삶에서의 수명(Danner et al., 2001), 긍정적인 대인관계(구재선 등, 2009; Waugh & Fredrickson, 2006), 심리적 탄력성(Fredrickson, Tugade, Waugh, & Larkin, 2003), 자기존중감(구재선, 2009)의 증가를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긍정적 정서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을 형성한다는 Fredrickson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개인적 자원을 많이 형성함으로써 이후 삶에서 더 큰 성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행복 수준은 미래 한국 사회의 번영 정도를 예측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미래 한국 사회의 번영을 반영하는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단일민족 중심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집단을 수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또한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지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행복이 미래 사회 번영의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한국인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174만 1,919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3.4%에 해당한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54만 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연평균 14.4%의 증가율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행정자치부, 2015).

그러나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이것은 다른 인종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용성이 전 세계 59개국 중에서 51위로 낮다는 최근 국가 비교 조사 발표에도 잘 나타나있다(연합뉴스, 2015년 8월 20일자). 같은 조사에서 한국인이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비율은 34%로 전체 국가 평균인 19%보다 더 높았다. 한국인들이 타문화집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실제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박주희, 정진경, 2008), 한국인의 실제 태도는 조사된 결과보다 더 부정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화적 배타성과 편견은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은 한국인들의 외집단 인식,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주희, 정진경, 2007; 양계민, 2010). 이에 전문가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소수집단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박준성, 최영진, 정태연, 2015; 박준성, 허성호, 전미연, 정태연, 2015).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사회 갈등으로 인

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타문화 집단에게 보이는 태도에 주목했으며, 주류집단 구성원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다.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관련 가능성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검토한 선행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의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은 사람들이 세상을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범주화하고, 그 과정에 두 범주간의 차이를 실제보다 과장하기 때문이다(양계민, 정진경, 2008). 그런데 Fredrickson(1998, 2001)의 확장-형성 이론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의 한 요소인 긍정적 정서는 주의를 확장시킴으로써 세상을 더 포괄적으로 범주화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실제로 행복 무드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자신의 집단에 포함하여 내집단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Urada & Miller, 2000), 각 집단을 더 큰 상위집단으로 표상함으로써 내집단 편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ovidio, Gaertner, Isen, & Lowrance, 1995).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집단 구성

원들을 더 상위집단(예컨대 같은 인간)으로 표상하여 내집단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둘째, 소수집단에 대해서 주류 사회 구성원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일자리와 같은 제한된 자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협 의식과 현실 갈등 인식 때문이다(양계민, 2009, 2010).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남이 행복하면 그만큼 자신의 행복의 양이 줄어든다는 믿음(belief in fixed amount of happiness: BFAH)이 약하다. 이들에게 행복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닌 것이다(구자영, 서은국, 2007). 또한 행복 무드에 있는 사람은 갈등과 경쟁을 선호하지 않고,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이 양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aron, 1990; Baron, Fortin, Frei, Hauver, & Shack, 1990).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 갈등 인식이 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문화 소수집단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보다 자기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이 높고 낙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재선, 2009; Lyubomirsky et al., 2005; Myers & Diener, 1995; Veenhoven, 1988). 이것은 행복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관은 다른 소수집단이 자신의 자원을 뺏을 수 있다는 심리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주류집단 구성원들은 불행한 주류집단 구성원보다 소수집단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 뿐 아니라 타

인과 세상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enhoven, 1988, 1989). 선행 연구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낯선 파트너를 친절하고 따뜻하며 관용적인 사람으로 기술하는 등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Hansen, 1996; Judge & Higgins, 1998; Lyubomirsky & Tucker, 1998). 또한 행복은 자신과 타인간의 일체감과 친밀감을 확대하고(Waugh & Fredrickson, 2006), 타인에 대한 신뢰와 도움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Cunningham, 1988; Manucia, Baumann, & Cialdini, 1984). 이러한 행복의 사회적 및 친사회적 기능으로 인해, 행복한 주류집단 구성원들은 낯선 소수집단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고 친사회적인 태도와 일체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태도의 예측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한 국내 연구는 양계민(2010)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계민(2010)의 연구는 두 변인을 동일 시점에 측정한 횡단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과 미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한국인들의 낮은 행복감이 미래 다문화 사회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횡단적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했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할

경우 응답자들은 자신의 실제 태도나 내적 경험을 보고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에도 선행연구(양계민, 2010)에서 나타난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횡단적 관계가 유지되는지 검토했다.

그 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패널종단자료를 분석하여 주관적 안녕감이 미래 다문화 태도에 대해 예측력을 갖는지 검토했다.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청소년기동안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구재선, 2009).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의 초기값 뿐 아니라 변화 추이가 미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 검토했다. 이를 위해 반복측정자료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다루는 잠재성장모형분석(문수백, 2009)을 실시했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미래 시점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를 예측하는지 검토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파악하고자 한 연구문제는 첫째, 주관적 안녕감의 초기값이 미래 시점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를 예측하는가, 둘째,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추이가 미래 시점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를 예측하는가이다.

예비연구

방 법

연구대상

예비연구의 대상은 대학생 총 263명(남자

107명, 여자 15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21.35세(표준편차: 2.54)였고, 전공은 인문사회계 157명(59.7%), 예체능계 67명(25.5%), 자연계 38명(14.4%), 무응답 1명(4%)의 순이었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중위권으로 응답한 사람이 146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중-상위와 중-하위가 각각 51명(19.4%)이었으며, 그밖에 하위 10명(3.8%), 상위 4명(1.5%), 무응답 1명(4%)이었다.

측정도구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1984)에 따라 생활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생활만족은 Diener, Emmons, Lar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인 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14였다. 정서 경험은 Diener, Smith, 및 Fujita(1995)가 개발한 ITAS(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에 대한 이은경(2005)의 변안본으로 측정했다. 이 척도는 지난 한달 동안 정서 경험의 빈도를 묻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 8문항과 부정적 정서 16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904와 .908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주관적 안녕감 점수는 생활만족과 긍정적 정서 문항 평균의 합에서 부정적 정서 문항 평균을 뺀 차이점으로 산출했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양계민(2009)의 척

도 중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한국 내에서 문화적, 인종적 배경에 의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역산하여 긍정적 태도 점수를 산출했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태도(‘신뢰감이 든다’, ‘게으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등) 24문항과 정서적 태도(‘좋다’, ‘싫다’, ‘정이 간다’, ‘두렵다’ 등) 12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각각 $a=.809$ 와 $a=.809$ 였다. 행동적 태도의 경우, 소수집단을 이웃, 직장동료, 연인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a=.927$ 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은 Strahan과 Gerbasi(1972)의 척도로 측정했으며,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10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a=.548$ 이었다.

결과 및 논의

먼저 측정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소수집단에 대한 인지적 태도($r=.132, p<.05$) 및 정서적 태도($r=.139, p<.05$)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고,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관계도 유의했다($r=.321, p<.001$).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확인되

표 1.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횡단적 관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주관적 안녕감			전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생활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	
인지적 태도	1.00						
정서적 태도	.66**	1.00					
행동적 태도	.45**	.56**	1.00				
생활만족	.15*	.17**	.13*	1.00			
긍정정서	.13*	.14*	.13*	.46**	1.00		
부정정서	-.09	-.09	.00	-.35**	-.26**	1.00	
주관적 안녕감	.16*	.18**	.12†	.81**	.77**	-.68**	1.00
평균	3.28	3.46	3.37	3.13	3.14	2.52	3.75
표준편차	.33	.49	.75	.76	.78	.69	1.72
문항수	24	12	12	5	8	16	-
신뢰도	.809	.809	.927	.814	.904	.908	-

주. 상관계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 한 부분상관계수임

** $p<.01$, * $p<.05$, † $p<.10$

었다.

이에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부분 상관 계수를 검토했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했을 때에도 주관적 안녕감은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 정서, 행동적 태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성별 차이의 경우, 남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태도와만 유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에($r_{\text{partial}}=.21, p<.05$), 여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태도($r_{\text{partial}}=.17, p<.05$) 및 행동적 태도($r_{\text{partial}}=.27, p<.01$)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정서적 태도와도 정적 관계도 경계선상에서 유의했다($r_{\text{partial}}=.16, p<.10$).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집단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선행 연구(양계민, 2010) 결과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 때문만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주관적 안녕감이 동일 시점 뿐 아니라 미래 시점의 다문화 태도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

방 법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초등학교 4학년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조사는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과 발달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해마다 추적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4차 조사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모두 측정된 2-4차(초5-중1) 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응답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차 조사의 참여 인원은 총 2,264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2차 조사 당시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2,189명(남자 1,135명, 여자 1,05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대상자 중에서 3차와 4차 조사 참여자수는 각각 2,104명(남자 1,098명, 여자 1,006명)과 1,996명(남자 1,038명, 여자 958명)이었다.

분석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검토했을 때, 아버지 최종학력은 고졸자(826명, 37.7%)와 대졸자(749명, 34.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296명, 13.5%), 대학원졸(135명, 6.2%), 중졸이하(49명, 2.2%)의 순이었다(무응답 134명, 6.1%). 어머니의 최종학력도 동일하게 고졸(1,065명, 48.7%), 대졸(519명, 23.7%), 전문대졸(379명, 17.3%), 대학원졸(66명, 3.0%), 중졸이하(50명, 2.3%)의 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110명, 5.0%). 이들이 소속된 가구의 연간 소득 평균은 4,351만원($SD=2,721$)이었다.

측정도구

주관적 안녕감

패널데이터에 포함된 문항 중에서 김신영 외(2006)의 삶의 만족도 3문항을 주관적 안녕감의 지표로 사용했다. 문항 내용은 ‘사는게

즐겁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이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1: 매우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항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Diener(1984)가 정의한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산하여 분석했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2차 조사 $\alpha=.807$, 3차 조사 $\alpha=.860$, 4차 조사 $\alpha=.838$ 이었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지표로 사용했다. 이 문항들은 양계민과 정진경(2008)의 다문화 수용도 문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 반 친구, 가장 친한 단짝, 이성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1: 매우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측정된 문항들은 양계민(2009)이 주장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3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태도의 행동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차와 4차 조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alpha=.825$ 와 $\alpha=.845$ 였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산하여 분석했다.

자료분석

SPSS 23과 AMOS 23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먼저 기초분석으로 연령별, 성별 평균을 비교하고, 통제변인 선정을 위해서 2년 후 다문화 태도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초기 다문화 태도의 설명력을 검토했다. 이러한 기초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

형검증을 실시했다. 모형 검증을 위해 먼저 다문화 태도 문항의 타당도 및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고,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으며, 그 후에 설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했다. 종단자료에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으로 모형을 추정했고(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모형 적합도 지수로는 χ^2 , TLI, CFI, RMSEA를 사용했다.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되고, RMSEA는 .05이하이면 양호한 모델, .05~.08수준이면 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괜찮은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RMSEA는 90% 신뢰구간에서 상한치가 .10 이하가 되어야 모델이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문수백, 2009). 끝으로 위계적 모형간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실시했다.

결과 및 논의

기초분석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했다.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였고,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보다 중1시기에 더 높았다. 성별 평균 차이를 검토했을 때, 주관적 안녕감은 초등학교 5학년($F=16.20, p<.001$), 6학년($F=81.42, p<.001$), 중학교 1학년($F=103.04, p<.001$) 시기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초5($F=.08, p=.774$)와

표 2.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주관적 안녕감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초5	초6	중1	초5	중1
전체	3.26 (.64)	3.23 (.67)	3.15 (.63)	2.90 (.64)	2.96 (.59)
남자	3.31 (.63)	3.36 (.64)	3.29 (.60)	2.91 (.65)	2.97 (.60)
여자	3.20 (.64)	3.10 (.67)	3.01 (.63)	2.90 (.62)	2.96 (.58)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중1($F=.23, p=.634$) 시기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통제변인 선정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측정된 인구학적 변인(성별, 부모학력, 가구 연간소득)과 다문화 태도가 2년 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 검토했다. 회귀분석 결과 중1시기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beta=-.014, p=.550$), 부학력($\beta=.005, p=.874$), 모학력($\beta=.005, p=.861$), 가구연간소득($\beta=-.002, p=.942$)의 예측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중1시기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했다($\beta=.306, p<.001$).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초기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통제했을 때 주관적 안녕감이 2년 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모형 검증을 통해 검토했다.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정규성 검증

모형검증을 위해서 먼저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자료의 정규성 분포를 검토했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중1 시기에 측정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 및 초5, 초6, 중1시기 주

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측정된 모든 변인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이 정규분포 기준(skewness <3, kurtosis <10)을 충족하여 모형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Kline, 201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의 타당도 검증

다음으로 5문항으로 구성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차 조사 자료(초5)의 적합도 지수는 $\chi^2=763.555, df=5, p<.001, TLI=.680, CFI=.840, RMSEA=.263(.248 \sim .279)$ 였고, 4차 자료(중1)의 경우 $\chi^2=1,396.309, df=5, p<.001, TLI=.250, CFI=.750, RMSEA=.357(.341 \sim .372)$ 로 나타나서, 두 자료 모두 적합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수정지수에 따라 가장 친한 단짝, 이성 친구, 배우자로서의 수용 여부를 묻는 문항3, 4, 5번의 잔차들 간에 상관을 설정했다. 이렇게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2차 자료의 경우 $\chi^2=3.512, df=2, p=.173, TLI=.998, CFI=1.000, RMSEA=.019(.000 \sim .050)$ 였고, 4차 자료는 $\chi^2=8.662, df=2, p=.013, TLI=.991, CFI=.999, RMSEA=.039(.015 \sim .067)$ 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양호해졌다. 카이자

표 3. 측정변인들의 상관, 왜도 및 첨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71**	1.00											
3	.58**	.66**	1.00										
4	.39**	.41**	.52**	1.00									
5	.33**	.35**	.43**	.63**	1.00								
6	.21**	.22**	.21**	.14**	.16**	1.00							
7	.18**	.18**	.18**	.13**	.17**	.81**	1.00						
8	.17**	.17**	.24**	.19**	.22**	.59**	.64**	1.00					
9	.11**	.10**	.16**	.20**	.25**	.43**	.43**	.59**	1.00				
10	.13**	.12**	.15**	.20**	.26**	.36**	.36**	.50**	.73**	1.00			
11	.29**	.30**	.28**	.20**	.14**	.06**	.07**	.03	.01	.03	1.00		
12	.13**	.13**	.13**	.11**	.08**	.10**	.10**	.08**	.04	.02	.40**	1.00	
13	.06**	.05*	.08**	.06**	.04	.16**	.17**	.15**	.10**	.10**	.31**	.44**	1.00
왜도	-.70	-.71	-.39	-.10	.09	-.45	-.53	-.30	-.15	-.03	-.64	-.64	-.37
첨도	.58	.54	-.59	-.85	-.96	.82	.77	-.43	-.63	-.78	.27	.15	-.13

1: 초5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1, 2: 초5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2, 3: 초5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3, 4: 초5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4, 5: 초5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5, 6: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1, 7: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2, 8: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3, 9: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4, 10: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5, 11: 초5 주관적 안녕감, 12: 초6 주관적 안녕감, 13: 중1 주관적 안녕감
 ** $p < .01$, * $p < .05$

승 차이검증을 실시했을 때에도 2차 자료 $\Delta\chi^2 = 760.043$, $df=3$, $p < .001$, 4차 자료 $\Delta\chi^2 = 1387.647$ $df=3$ $p < .001$ 로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에 수정된 모형을 연구모형 설정을 위한 최종 모형으로 채택했다.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에 대한 모형 비교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주관

적 안녕감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1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했다. 세 측정 시점(초5, 초6, 중1)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일관성 있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선형변화 모형이 적용되고, 이러한 일관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무변화 모형이 적용된다.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했을 때,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86.656$, $df=6$, $p < .001$, TLI=.906, CFI=.906, RMSEA=.078(.064

~.093)이었고, 선형 변화 모형의 경우 $\chi^2=32.638$, $df=3$, $p<.001$, $TLI=.931$, $CFI=.965$, $RMSEA=.067(.048\sim.089)$ 이었다. 두 모형의 지수들을 비교했을 때 선형변화 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무변화 모형보다 더 양호했으며, 카이제곱 값 또한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보다 유의하게 더 작았다($\Delta\chi^2=54.018$, $df=3$, $p<.001$). 따라서 청소년기 주관적 안녕감은 해마다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선형변화 모형에서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검토했다.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 초기치의 평균은 3.265, $p<.001$ 이었고, 변화율의 평균은 -.051, $p<.001$ 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이 되어감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은 해마다 평균 -.051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경우 초기치의 분산(.184, $p<.001$)과 변화율의 분산(.020,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주관적 안녕감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주관적 안녕감의 초기값(초5)과 변화율(초5~중1)의 개인차가 2년 동안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지 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모형 검증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했다. 먼저 설정된 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문항이 시점에 따라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김주환 등(2009)에 따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모형1)과 잠재변수인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요인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2)간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chi^2=339.774$, $df=58$, $p<.001$, $TLI=.962$, $CFI=.976$, $RMSEA=.047(.042\sim.052)$ 이었고, 동일화제약을 가한 모형2의 적합도는 $\chi^2=348.222$, $df=62$, $p<.001$, $TLI=.964$, $CFI=.976$, $RMSEA=.046(.041\sim.051)$ 이었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Delta\chi^2=8.448$, $\Delta df=4$, $p=.765$ 로 두 모형간 차이가 없었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모두 모형2가 모형1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측정이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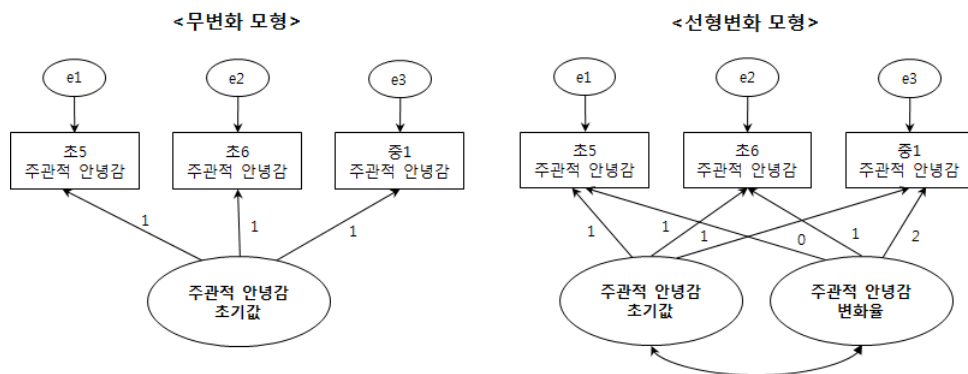


그림 1.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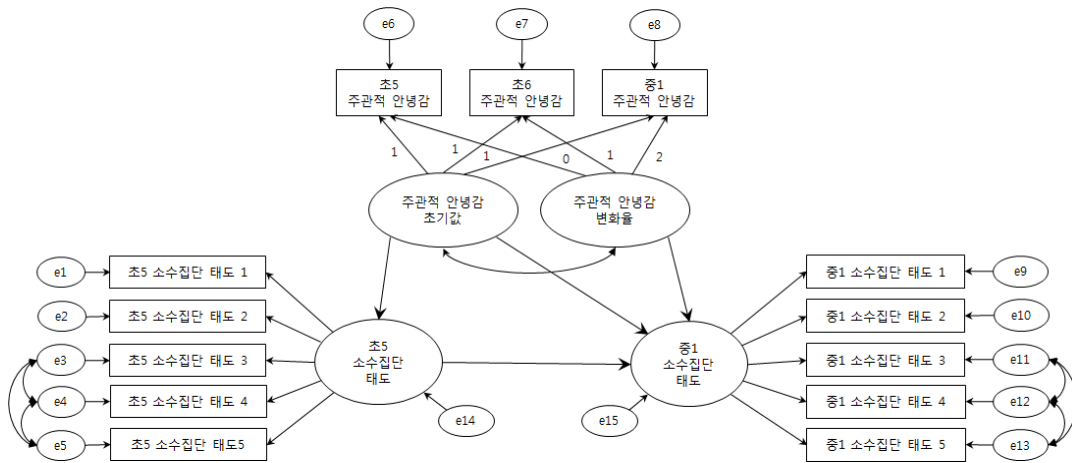


그림 2.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

모형2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했을 때 모든 지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었기에 측정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2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했다.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했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beta=.318, p<.001$ 로 유의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시기에 다문화 태도가 긍정적인 청소년이 중1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다문화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에도, 주관적 안녕감 초기값에서 동일시기 및 중1시기 소수집단에 대한 태

도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각각 $\beta=.395, p<.001$ 과 $\beta=.094, p<.01$ 로 유의했다.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동일시기에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뿐 아니라 중1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주관적 안녕감 변화율에서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로의 경로 추정치도 $\beta=.366, p<.001$ 로 유의했다. 주관적 안녕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였으므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이 되는 동안 주관적 안녕감이 적게 감소한 청소년이 중1이 되었을 때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모수	표준화된 경로 계수
초5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318***
주관적 안녕감 초기값 → 초5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395***
주관적 안녕감 초기값 →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094**
주관적 안녕감 변화율 → 중1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366***

*** $p<.001$, ** $p<.01$

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주관적 안녕감 및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래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이 통계적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횡단 및 종단적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느끼는 대학생은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고, 내집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학교 5학년생들도 다문화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동일시점에 측정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다는 양계민(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가 성인 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일반화 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 결혼이민자의 자녀와 같은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동일시점 뿐 아니라 2년 후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다문화 태도가 현재의 주관

적 안녕감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이러한 예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미래 특정 시점에서의 태도 예측이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2년 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므로, 현재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에 비해서 미래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는 태도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초기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통제했을 때에도 2년 후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2년 동안의 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추이를 통한 예측이다. 본 연구에서 미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초기값 뿐 아니라 변화율을 통해서도 설명되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한 사람은 감소한 사람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미래 다문화 사회에서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부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보다 미래에 다문화 태도가 더 부정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더 낮았기 때문이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지난 10년간 그대로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20일자).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이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장희숙, 2004). 따라서 이 시기에 어떠한 다문화 태도를 형성하는가는 미래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알려져 있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또한 청소년기동안 행복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구재선, 2009),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 사이에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이 미래시점의 다문화 태도를 예측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가 향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교육적,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소년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할까? 본 연구만으로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종단 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행복을 통해 미래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태도 변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이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진시킨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현재의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미래 한국 사회의 다문화 태도 및 태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성원들이 불행한 사회보다 행복한 사회에서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한 태도가 더 우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복이 태도 변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종단 연구의 결과가 인과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을지라도 횡단연구보다는 인과적 방향성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 또한 행복이 소수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행복 무드가 유발된 사람이 타인을 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하고(Berry & Hansen, 1996; Lyubomirsky & Tucker, 1998), 타인이 자신의 자원을 위협한다고 인식하지 않으며(구자영, 서은국, 2007), 더 다양한 대상을 자신의 내집단에 포함시킨다면(Dovidio et al., 1995; Urada & Miller, 2000), 행복 증진을 통해 다문화 소수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행복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실험이나 개입을 통해 증가된 행복이 다문화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연구들에서 행복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의 원인임이 확인된다면, 미래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이 상생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행복이 미래 한국사회의 다문화 태도를 예측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집단 구성원들의 행복이 산출하는 결과는 분명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행복은 Oishi(2012)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가 번영을 위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행복이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

지에 대한 지식의 범위를 넓혀주었고, 지금까지 다문화 태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간과되어진 행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다문화 태도의 관계 강도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만으로 미래 사회의 다문화 수용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이 미래 다문화 태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하거나 유일한 요소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주관적 안녕감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것(Lyubomirsky et al., 2005)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점의 다문화 태도와도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Erwin, 2001; 양계민, 2009), 종단패널자료에 행동적 반응만이 포함되어서 정서적 태도 및 인지적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최근 태도와 편견에서 정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소수집단에 대한 감정과 생각 또한 행동의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예측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인 연구자가 대규모 종단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기관들이 대규모 패널 자료 구축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태도나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들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과 주류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를 다루지 못했다. 행복한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더 우호적이라는 선행 연구(Berry & Hansen, 1996; Judge & Higgins, 1998; Lyubomirsky & Tucker, 1998)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 행복한 사람은 소수집단 뿐 아니라 주류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도 불행한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수준에 따라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가 더 크거나 작을 수 있기에, 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행복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객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선행연구(Lyubomirsky et al., 2005; Veenhoven, 1988, 1989)의 결과가 다문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따라서 현재 행복에서 미래 다문화 태도로의 방향성을 가정했으나, 반대방향으로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 만일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수립된다면 자기회귀교차지연분석을 통해 양방향적 영향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행복이 어떻게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는지 그 매개변인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암묵적 척도로 측정했을 때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자영, 서은국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9.

구재선 (2009).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65-179.

구재선, 서은국 (2012). 행복은 4년 후 학업성취를 예측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35-50.

구재선, 서은국 (2013). 행복이 미래 수입과 직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2), 17-36.

구재선, 이아롱, 서은국 (2009). 행복의 사회적 기능: 행복한 사람이 인기가 있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29-47.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4). 행복과 학업성취: 대학생 중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329-346.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 121-154.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박주희, 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21.

박준성, 최영진, 정태연 (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719-738.

박준성, 허성호, 전미연, 정태연 (2015).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21-43.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연구. (연구보고 08-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합뉴스 (2015. 8. 20). 한국 다문화 수용성 우려수준, 10년간 제자리.

이은경 (2005).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Baron, R. A. (1990). Environmentally induced positive affect: Its impact on self-efficacy, task performance, negotiation, and confli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 368-384.

- Baron, R. A., Fortin, S. P., Frei, R. L., Hauver, L. A., & Shack, M. L. (1990). Reducing organizational conflict: The role of socially-induced positive a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 133-152.
- Berry, D. S., & Hansen, J. S. (1996).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96-809.
- Cunningham, M. R. (1988). Does happiness mean friendliness? Induced mood and heterosexual self-disclos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 283-297.
- Danner, D. D., Snowdon, D. A., & Friesen, W. V. (2001). Positive emotions in early life and longevity: Finding from the nu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04-81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16*, 542-575.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3).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13*, 187-219.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30-141.
- Diener, E., & Suh, E. M. (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434-450). NY: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 Suh, E. M.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MIT Press.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 1-23.
- Dovidio, J. F., Gaertner, S. L., Isen, A. M., & Lowrance, R. (1995). Group representations and intergroup bias: Positive affect, similarity, and group siz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856-865.
- Erwin, P. (2006). 태도와 설득[Attitude and persuasion](고은경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1년에 출판).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Fredrickson, B. L., & Branigan, C. (2005).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ought-action repertoires. *Cognition and Emotion, 19*, 313-332..
- Fredrickson, B. L., Tugade, M. M., Waugh, C. E., & Larkin, G. R. (2003).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e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65-376.
- Harker, L., & Keltner, D. (2001).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in women's college yearbook

- pict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sonality and life outcome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112-124.
- Judge, T. A., & Higgins, C. A. (1998). Affective disposition and the letter of referen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5, 207-22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Guilford Press.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 Lyubomirsky, S., & Tucker, K. L. (1998). Implicatio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for perceiving, interpreting, and thinking about life events. *Motivation and Emotion*, 22, 155-186.
- Manucia, G. K., Baumann, D. J., & Cialdini, R. B. (1984). Mood influences on helping: Direct effects or sid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357-364.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Oishi, S. (2012). *The psychological wealth of nations: Do happy people make a happy society?* Hoboken, NJ: Wiley-Blackwell.
- Oishi, S., & Koo, M. (2008). Two new questions about happiness.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 290-306). NY: The Guilford Press.
- Strahan, R., & Gerbasi, K. C. (1972). Short homogenous version of the Marlowe-Crown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191-193.
- Urada, D., & Miller, N. (2000). The impact of positive mood and category importance on crossed categorization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417-433.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33-354.
- Veenhoven, R. (Eds.) (1989). *How harmful is happiness? consequences of enjoying life or not?* Rotterdam, The Netherlands: University Press Rotterdam.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93-106.

논문 투고일 : 2016. 01. 19
1차 심사일 : 2016. 02. 03
게재 확정일 : 2016. 04. 18

Subjective Well-being and Attitude toward Minority Group Members: A longitudinal analysis

Jaisun Koo

Chung-Ang University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subjective well-being on attitude towards minority group members. In a cross-sectional data, the higher subjective well-being predicted more positive cognitive beliefs, affective feeling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s foreign laborers and children of international couples. The causal link from subjective well-being to greater tolerance for cultural diversity was found again in a large longitudinal sample. The rate of life satisfaction increase from Time 1 to Time 2 significantly predicted multicultural receptiveness at Time 2.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well-being may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favorable attitude towards minority group members.

Key words : subjective well-being, attitude towards minority group,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tudy